

02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

韓中關係的歷史與現實

近代外交, 相互認識

유용태 엮음

韓中
關係



한울
아카데미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

유용태 엮음

常州大学图书馆
藏书章



한울
아카데미



한울아카데미 1649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 02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

© 유용태, 2013

역은이 | 유용태

펴낸이 | 김종수

펴낸곳 | 도서출판 한울

편집책임 | 김경아

초판 1쇄 인쇄 | 2013년 12월 21일

초판 1쇄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413-756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전화 | 031-955-0655

팩스 | 031-955-0656

홈페이지 | www.hanulbooks.co.kr

등록번호 | 제406-2003-000051호

ISBN 978-89-460-5649-7 93910

* 책값은 겉표지에 있습니다.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를 펴내며	3
책머리에	9

서장_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 유용태 14

1. 머리말 14
2. 제국시기 중국의 이종외교와 한중 근대외교의 지체 17
3. 공화국 시기 이종외교의 지속과 한중관계 27
4. 전후 중국의 보편외교와 한중수교 36
5. 맺음말 44

제1부 한중 근대외교의 형성과 전개

제1장_ 한중 근대외교의 실험(1895~1905) ■ 이은자 51

1. 머리말 51
2. '자주의 국'에서 '평행의 국'으로 53
3. 한중 근대외교의 탄생: 한청통상조약 61
4. 한중 근대외교의 실험과 그 한계 71
5. 맺음말 80

제2장_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2~1945)

- 배경한 84
- 1. 머리말 84

2. 신해혁명 전후 시기 한인독립지사들의 중국 망명과 한중교류의 개시 86
3.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저우호법정부의 관계 93
4. 중일전쟁시기 한중관계와 임시정부 승인 문제 101
5. 맺음말 107

제3장_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48~1992)

‘형제지방(兄弟之邦)’에서 ‘흥지지방(興地之邦)’으로 ■ 손준식 110

1. 머리말 110
2. 냉전시기 반공동맹관계 114
3. 대탕트 이후 실리우호관계 129
4. 맺음말 141

제4장_ 북한·중국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 선즈화 143

1.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 144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문제 처리 방침 150
3. 김일성의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161
4. 북중 국경조약 및 그와 관련된 문건의 내용 170
5. 맺음말 179

제2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상호인식의 변화

제1장_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한국인식 ■ 왕위안저우 187

1.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인식 188
2. 한국: 전통과 현대 192
3. 민족자존: 애정과 분개 199
4. 맺음말 202

제2장_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 백영서 204

1. 머리말 204
2.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역사 궤적과 동북공정의 충격 206
3. 동북공정 이후 한국 역사학자의 중국인식 216
4. 결론을 대신하여 232

제3장_ 냉전시기 한국인의 대만인식

일간지의 대만 관계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정문상 238

1. 머리말 238
2. 반공우방, 일본문화에 압도된 대만사회 241
3. (농촌)근대화의 모델 243
4. 자립과 자강 의지가 넘치는 중소기업 강소국 246
5. ‘민주화 바람’과 대만인식의 다층화 251
6. 맺음말 254

제4장_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 정홍성 257

1. 머리말: 대만과 중국 간 명칭의 대립 257
2. 대만에서의 중국인식의 몇 차례 역사적 전환 261
3. '대만인' 자아인식의 형성과 오늘의 난제 267
4. '대만민족' 상상의 가능성과 그 장애 272
5. '중국' 명칭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의 난제 278
6. 맺음말: 근대민족국가의 한계와 문명적 시야의 전망 291

제5장_ 현대 중국의 핵정책과 일본의 평화운동 ■ 마루카와 데쓰시 296

1. 머리말 296
 2. 한국전쟁이라는 기점 298
 3. 소련으로부터의 '자립' 300
 4. 마오쩌둥의 전쟁과 평화 306
 5.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 일본에 미친 영향 310
 6. 냉전이 변질되는 1970~1980년대 312
 7. 맺음말을 대신하여: 제3세계 혹은 중국의 '핵 보유' 316
- 부록_ 중국(그 외) 원자력 관련 연표 321

참고문헌 323

중문제요 340

찾아보기 34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

유용태 엮음



한울
아카데미



일러두기

중국 인명 등 외래어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따라 표기하였으나 약간 예외를 두었음.

- 중국 인명은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음.
-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음.
- 다만 논하는 시기나 내용이 이러한 표기법 규정을 적용하기 애매한 등의 경우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 곳도 있음. 예컨대 間島는 젠다오가 아닌 간도로 표기하였고, 吉林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획정 문제를 다루는 제1부 제4장에서는 지린이 아닌 길림이라고 표기하였음.
- 타이완/대만은 둘 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로서 각 저자의 표기대로 사용하였음.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3029155)

중국근현대사학회는 1992년 1월 중국 근현대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인들의 단체로 창립되었다. 이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여 학회 탄생의 동력이 되어준 결과다. 그 자체가 한국의 중국사 연구의 발전을 의미하는 현상이거니와 이로써 본회는 냉전시기에 이념의 잣대로 오랫동안 금기시해온 중국 근현대사 연구의 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중국연구는 조선시대의 한학(漢學)과 북학(北學)을 거쳐 근대시기에 제국일본의 지나학(支那學)과 동양학(東洋學) 체계의 영향을 받는 한편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조선학운동(朝鮮學運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후에 각종 학회가 성립되었으나 동양사 전체 혹은 중국의 문학·역사·철학을 아우르는 학회는 있었어도 중국사를, 그것도 근현대사를 특정한 학회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회의 탄생은 남다른 조건과 필요에 의해 추동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중국이 갖는 의미, 우리가 중국을 연구하는 의미는 수차례 바뀌었다. 그것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인

동시에 인식 주체인 우리의 처지와 필요가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중국은 분명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였지만 늘 그 이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특히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본회가 감당해야 할 학술적 과제는 크고도 엄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른 분과의 학문도 그러하지만, 특히 근현대사 연구는 연구자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사회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질문하고 답을 구하며, 그 결과를 갖고 자기를 키워낸 현실사회와 학술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전될 수 있다. 『논어』에 따르면, 학문의 요체란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仁)의 실천이다(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절문(切問)은 다름 아닌 근사(近思)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까움은 일정한 거리두기를 거칠 때에만 절실한 물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침 우리의 연구 대상인 중국은 현실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탈냉전과 함께 갑자기 너무나 가까워진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화하여 절실한 물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 일본판 ‘동양사학’의 틀로 바라본 중국사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재조직될 ‘(동)아시아사학’ 속의 중국사를 상상하면서 본회 회원들이 감당해야 할 도전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회는 창립 20주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학술활동의 성과를 딛고서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를 간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총서가 회원과 독자의 관심 속에 꾸준히 이어져 오늘의 중국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외 각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13년 6월

한국중국현대사학회 회장 유용태

중국근현대사학회 연구총서를 펴내며 3

책머리에 9

서장_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 유용태 14

1. 머리말 14
2. 제국시기 중국의 이종외교와 한중 근대외교의 지체 17
3. 공화국 시기 이종외교의 지속과 한중관계 27
4. 전후 중국의 보편외교와 한중수교 36
5. 맺음말 44

제1부 한중 근대외교의 형성과 전개

제1장_ 한중 근대외교의 실험(1895~1905) ■ 이은자 51

1. 머리말 51
2. '자주의 국'에서 '평행의 국'으로 53
3. 한중 근대외교의 탄생: 한청통상조약 61
4. 한중 근대외교의 실험과 그 한계 71
5. 맺음말 80

제2장_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2~1945)

■ 배경한 84

1. 머리말 84

2. 신해혁명 전후 시기 한인독립지사들의 중국 망명과 한중교류의 개시 86
3.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저우호법정부의 관계 93
4. 중일전쟁시기 한중관계와 임시정부 승인 문제 101
5. 맺음말 107

제3장_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48~1992)

‘형제지방(兄弟之邦)’에서 ‘흥지지방(興地之邦)’으로 ■ 손준식 110

1. 머리말 110
2. 냉전시기 반공동맹관계 114
3. 대탕트 이후 실리우호관계 129
4. 맺음말 141

제4장_ 북한·중국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 선즈화 143

1.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 144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문제 처리 방침 150
3. 김일성의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161
4. 북중 국경조약 및 그와 관련된 문건의 내용 170
5. 맺음말 179

제2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상호인식의 변화

제1장_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한국인식 ■ 왕위안저우 187

1.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인식 188
2. 한국: 전통과 현대 192
3. 민족자존: 애정과 분개 199
4. 맺음말 202

제2장_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 백영서 204

1. 머리말 204
2.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역사 궤적과 동북공정의 충격 206
3. 동북공정 이후 한국 역사학자의 중국인식 216
4. 결론을 대신하여 232

제3장_ 냉전시기 한국인의 대만인식

일간지의 대만 관계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정문상 238

1. 머리말 238
2. 반공우방, 일본문화에 압도된 대만사회 241
3. (농촌)근대화의 모델 243
4. 자립과 자강 의지가 넘치는 중소기업 강소국 246
5. ‘민주화 바람’과 대만인식의 다층화 251
6. 맺음말 254

제4장_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 정홍성 257

1. 머리말: 대만과 중국 간 명칭의 대립 257
2. 대만에서의 중국인식의 몇 차례 역사적 전환 261
3. '대만인' 자아인식의 형성과 오늘의 난제 267
4. '대만민족' 상상의 가능성과 그 장애 272
5. '중국' 명칭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의 난제 278
6. 맺음말: 근대민족국가의 한계와 문명적 시야의 전망 291

제5장_ 현대 중국의 핵정책과 일본의 평화운동 ■ 마루카와 데쓰시 296

1. 머리말 296
 2. 한국전쟁이라는 기점 298
 3. 소련으로부터의 '자립' 300
 4. 마오쩌둥의 전쟁과 평화 306
 5.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 일본에 미친 영향 310
 6. 냉전이 변질되는 1970~1980년대 312
 7. 맺음말을 대신하여: 제3세계 혹은 중국의 '핵 보유' 316
- 부록_ 중국(그 외) 원자력 관련 연표 321

참고문헌 323

중문제요 340

찾아보기 343

이 책은 2012년 1월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중국근현대사학회가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는 한중 양국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전환점이고, 특히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는 자료 수집을 비롯한 각종 연구 여건을 크게 진전시킨 전기였다. 이에 우리는 이 두 개의 2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 2012년 11월 16일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을 주제로 한중관계를 되돌아보는 학술회의를 열었다. 그 초점은 이 주제를 양국관계로만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 음미해보는 것이었다.

한중 양국 간의 근대외교, 곧 국제법에 따라 상주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그에 의거해 진행하는 외교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지연되었고 그것마저 극히 단명으로 끝났다. 1899~1905년 대한제국과 청국의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한 6년이 전부인 것이다. 1919~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을 상대로 펼친 외교가 있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4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대한민

국과 중화민국이 수교하였으나 각기 분단국가로서 절반의 관계에 그쳤다. 더구나 후자는 반공동맹관계에 있었으면서도 상호 우호조약을 결여한 것이었는데, 뒤늦게 그것이 체결된 것은 1964년의 일로 베트남전쟁의 확산과 연관된 조치였다.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던 중국은 1950년 한반도의 남북전쟁에 참전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무대에 복귀하였다. 청일전쟁 이래 반세기만의 일이다. 그러나 한국과는 그로 인해 적대관계를 지속하다가 냉전체제의 완화와 소련 붕괴의 격변을 타고 1992년 비로소 수교에 이르렀다. 이때 남한이 대만을 간단히 무시하여 단교한 것과 달리 중국은 완충지대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한중 수교협상 당시 중국은 북한과 미·일의 수교를 포함하는 교차승인을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급성장하는 경제력과 소련의 붕괴를 배경으로 ‘6자회담’을 주도할 정도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중국 양안이 각기 분단국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이른바 ‘한중관계’라 하더라도 극히 복잡하다. 따라서 양자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동되고 엮ial린 4자관계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직시하기 위해 우리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분단체제를 고려해 남북한과 중국·대만을 모두 시야에 넣고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한중 간의 상호인식은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큼 변하였다. 가령 냉전시기 대만에게 한국은 ‘슝디(兄弟)’의 나라였으나 ‘슝디(甞地)’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와 짝을 이루어 중국은 한국에게 무찔러야 할 ‘공산 오랑캐’였으나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장 중국’으로 바뀌었다. 이는 2012년 한·중 무역 규모가 전체 무역량의 20.1%로 한미 간(9.5%), 한일 간(9.6%) 무역 규모를 합친 것을 앞지른 데서 잘 드러난다. 그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왕래·학습, 그리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